

## 건축가의 꿈과 현실

### The Dream and Reality of the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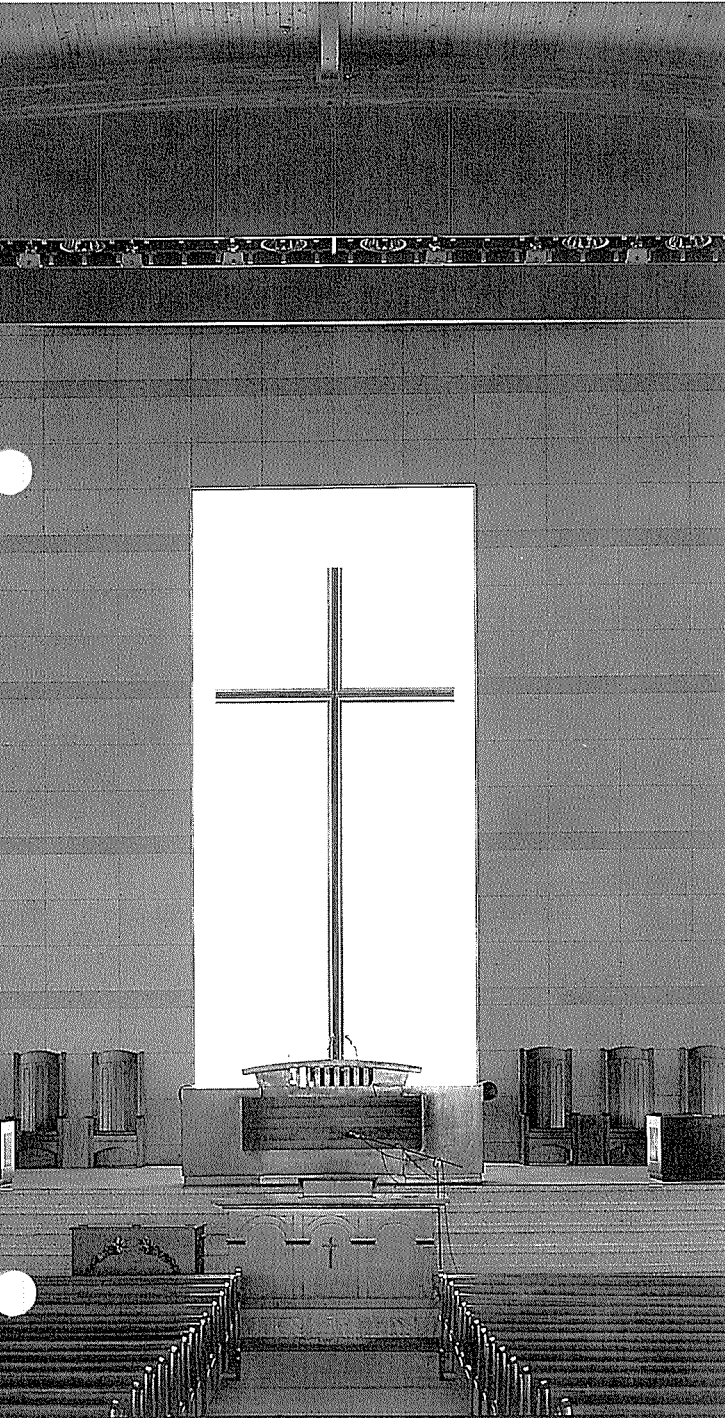
정인하/ 한양대 교수

by Jung In-Ha

건축가 최영집은 감성적인 건축가이다. 그리고 그의 건축은 비례가 아름답다. 그의 건축을 바라보면, 그가 가진 단아하고 명징한 감성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어 옴을 느낀다. 첨단 기계문명과 수많은 가짜 이미지(혹은 시뮬라크라)들이 공존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이런 감성은 건축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IMF 시대를 맞아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살벌한 한국의 건축판에서 이런 감성은 도대체 어떤 효용성을 갖는가? 건축 참여자들의 수많은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건축가에게 과연 감성은 강점인가 혹은 단점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건축가 최영집이 도전해야 하는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가 최근에 설계한 동안교회는 이런 도전이 하나의 결실이 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이 교회는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 세워진 도심 교회이다. 이 교회가 위치한 이문동은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서울의 번두리이다. 그래서 교회를 둘러싼 주위건물들은 매우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다. 이런 곳에 지역주민들에게 열린 하나의 중심을 건설하는 것은 건축가에게 분명 힘겨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또한 이 교회는 건축가가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이다.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그의 입장은 건축가로서 혹은 사용자로서 이 둘 사이를 오가는 이중적인 입장을 가졌음이 틀림없다. 건물의 완공 이후까지 무한대의 책임이 지워질 때 건축가의 행동은 매우 신중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의 상상력은 항상 현실이라는 기반을 떠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건축가에게 지워진 또다른 현

Choe Young-jeep is an architect whose architectures work on the level of emotions. The proportions of his works are pleasing to the eye. His buildings deliver the creator's refined and lucid feelings to its viewers. What, in the age of Post Modern, a coexistence between high technology and false images, would this emotion mean to the architect? What use does this sentimental value have, in this era's situation where design firms are in extreme competition for projects, in a field of ultimate survival through the economic crisis? How effective is it in the process of building, in which the architect takes the role of orchestrating the demands of a great number of people involved? Questions arise, and the answers to these will be the reality and important challenge of architect Choe. His recent work, the Dongan Church, is a fruit of his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a church in an urban context, in a rather unpleasant situation. Its location, Yimun-dong, at the edge of Seoul, is a natural outcome of the city's expansion, full of undesirable and disordered buildings. To provide the residents of this region with a Church, a place of open center, must have been a tough task for the architect, all the more since this is the very church he attends. His stance to the project was thus dual-faced: one as an architect, and one as a user. Architects have



실적인 과제이다. 이외에도 동안교회를 설계하면서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았다.

지금까지 건축가 최영집은 교회건축을 즐겨 설계하였다. 흑석동에 위치한 벨엘교회를 비롯하여 강현교회, 영주교회 등을 이미 설계한 바 있고, 지금도 설계를 진행 중인 교회가 2~3개나 된다. 그가 이처럼 교회건축에 열심인 것은 그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교회건축이 주는 즐거움과 고통을 그는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톨릭 성당과는 달리 개신교회는 의사결정과정이 중층적이다. 교직자와 장로로 이루어진 다수의 건축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건축가는 이들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또 개신교회는 교파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건축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가령 김수근이 설계한 경동교회는 “신앙은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교회성격에서 가능해졌다. 이것은 그만큼 건축가가 건물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공간을 주게 된다. 최영집은 이런 교회설계의 성격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 건물은 좁은 도로에 비해 다소 육중한 매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심속의 교회치고는 대지가 상당히 넓은 편(대지면적 1,123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공간이 상당히 옹색한 것은 사실이다. 건물의 측면으로 식당과 소통될 수 있는 외부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은 건물 전체의 기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교회라면 전체기능을 분절할 만한 공간을 건물내부에 집어넣을 법한

데, 여기서는 그것이 없다. 이것은 건축가의 이상이 현실 속으로 좌초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물론 그 좌초의 파편들은 건물 군데 군데 남아 있다. 가령 초기에 계획한 중정의 파편은 예배당과 교역자실 사이에 있는 3층 복도에 약간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동선체계도 지금은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진입하는 것이지만, 원래는 건물 모서리부터 시작되는 긴 통로로 되어 있었다. 사실 이 교회건물에는 그 규모에 비해 대단히 많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1층에는 500석 자리 중 예배당이 있고, 2층에는 200석 자리 소예배당이 2개 있으며, 3층에는 2,500석의 교회 본당이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을 배려한 온돌방과 만남의 방이 1층에 덧붙여 있고, 그 외에 많은 교회 부속시설들이 건물 곳곳에 들어서 있다. 이것의 기능적인 배분과 연결을 계획하는 것으로도 건축가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이다. 이런 현실적인 요구들은 건축가에게 많은 양보를 강요하여, 그가 초기에 지녔던 좋은 의도들을 상당부분 퇴색시켰음이 틀림없다. 중정이나 긴 동선 공간 대신에 매우 컴팩트한 기능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동선은 네 모서리에 위치한 계단에 의해 간명하게 처리되었다. 그가 이 교회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건축주의 의도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건축가의 강박관념이 이런 식의 타협을 더욱 용이하게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축가의 진정한 의도는 교회건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본예배당에 생생하게 살아 있어 주목할만하다. 보통 많은 종교건축을 방문해보면 건축가의 작위성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종교 건축의 본질

the infinitive responsibility for the work in its use after completion, and this is what controls the architect's imagination, one that can only be rooted in reality. This, along with others, is the reality of the project. Choe has already built a number of churches: The Bedel Church of Huksuk-dong, Kanghyun Church and Yungju Church, not to mention 2 or 3 church projects that are now in progress. The fact that he himself is a Christian may help to explain his devotion to religious architecture, but the main reason is rather that he understands the gratification and affliction in the process of such projects. Quite different from the management of the Catholic Church is that of the Protestant, where decisions are made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many people. This means that the client is not one but many people, comprised of priests and superior priests, and that the architect needs to communicate with all of them. The Protestant Churches also show diverse architectural styles in accordance with the domination's characteristics. For instance, Kyungdong Church by the late renowned architect Kim Su-gun, performs as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the church is in the presence of history." It builds a field where the architect can actively take part in. Choe seems to know the full possibility in this, and therefore has confidence in this project.

The church bulks rather large in comparison with its narrow adjacent road. It comparatively has a large site

area in an urban situation, but the outdoor space has somewhat been limited. A path on the side of the church which is an access to the cafeteria has not much impact to the building as a whole. The usual solution for a building of such size places an atrium in the middle for articulation, but here such space is curiously absent. It presents an impression that the ideal of the architect has been, in the course of design, shattered to pieces. Those pieces, however, are to be seen in various parts. The atrium from the preliminary design phases now claim its presence in the hall of the third floor, between the chapel and the rooms for religious workers. The circulation, though set in the middle part in the finalized version, was planned to follow a long path starting from the side of the church. It is true that the work houses too many functions compared to its size - though the size itself is not small at all. A chapel of 500 seats is placed in the first floor; two more chapels with the capacity of holding 200 peoples each is located in the second; the third floor has the main chapel, comprised of 2500 seats. There's even more: a meeting room provided for the area's residents is at the first floor, and other servicing spaces are placed in various parts of the building. It is evident that their mere distribution and connections were a big problem of the whole work. The architect had no other choice than to submit to the reality of this situation, compromising his many good intentions. Atriums and

이라고 할 수 있는 성스러운 예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그 종교건물이 가지는 성스러운 분위기를 건축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다음 이것을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태도가 종교건축을 그르치는 가장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예배 보는 공간은 다수를 포용하면서,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설교자를 향해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여 적어도 예배보는 시간 동안 신자들이 충일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상의 고려를 해야 한다. 동안교회의 본당은 이런 점에서 잘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곳에 가면 마음을 차분히 하면서도, 활기로우움을 잃지 않을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또 글루램(Gluelam)이라는 강화목재를 이용한 천장은 목재가 주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보통 교회건축에서 본예배당은 넓은 스패를 요구하게 되고, 이 경우 천장을 지지하는 거친 구조물들이 노출되어 내부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런 점을 피하기 위해 건축가는 오랫동안 넓은 스패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면서도 친근한 재료를 탐구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가 선택한 이 캐나다산 강화목재는 미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더욱 진행시켜, 이 재료가 교회건축 외에도 다양한 건물에 적용되었으면 한다. 본예배당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또다른 요소는 빛이다. 종교건축에서 빛은 건축가에 따라서 억제되기도하고 과도하게 노출되기도 한다. 이 교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된 유걸의 강변교회는 천장을 유리로 처리하여 빛이 무한정으로 들어

오게 한 반면, 승효상이 설계한 최근의 종교건축은 빛이 매우 억제되어 있다. 이것은 종교건축을 바라보는 건축가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동안교회에서의 빛은 측면의 고창과 전면 십자가 뒤에 있는 유리블럭을 통해 들어온다. 건축가는 평소 자연광으로 예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빛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나타나는 빛은 과도함이나 억제됨이 아닌 자연스럽게 편안한 빛이다.

동안교회에는 한국에서 교회건축이 지녀야 할 덕목과 함께 건축가의 꿈과 현실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그는 높은 종탑을 건물모서리에 배치하여 교회가 가지는 고전적인 이미지를 계승하면서도, 교회의 새로운 역할, 즉 지역사회를 위해 열린 교회라는 기능을 충실히 담고 있다. 교회가 가지는 본원적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내부 복도에 한국식 툇마루나 사랑방의 개념을 집어넣어 지역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과다한 기능의 수용으로 인해 프로그램적인, 형태적인 어려움을 노출시키고 있지만, 건축가의 노력으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있다. 건축가는 미래의 이상을 현실로서 구현하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설계한 건물에는 건축가의 꿈과 좌절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동안교회는 건축가 최영집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것이지만 아직도 실현해야 할 꿈이 많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long paths have been replaced by compact rooms, and distribution of circulation had taken a rather simple route in the four stairways at each corner. The fact that he well knows the architecture of religious purposes and the obsessive will to meet the requests of the clients might have made the compromise more acceptable.

These many changes, however, has not invaded the core space of the church, i.e. the main chapel, where true value of the architect can be found. Many church works by architects display too much of the architect's intention that it even affects the holy ceremonies, which the work is supposed to provide space for. The divine atmosphere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created in the architect's head, and then offered to the devotees. The chapel should supply a vast space to hold as many believers as possible, bless them with calm atmosphere that can preserve their attention to the priest. The main chapel of Dongan Church fulfill these requirements. The use of Gluelam, a sort of reinforced wood material, at the ceilings provide intimacy along with the natural scent of woods. It is a fruit of the architect's continuous research for new material and structure for an inevitable long-spanned space, and is in contrast to the usual solution of exposed heavy structural elements that get in the way of religious ceremonies. Its aesthetic and structural merits call

for further use in other buildings, not only churches, as well. Another dominant element of the chapel is the light. Light in religious works are suppressed or overly exposed according to the architect's point-of-view. Here light pervades from the clearstories on the side and the glass blocks behind the front cross. It was Choe's intention to light the space naturally, and thus provided a tranquil space with light, not too much nor too less.

Dongan Church is inherited with what is often asked of a religious work, along with the ideals and reality of the architect. A tower at the corner is in accordance with the traditional type of a church, yet the church fully fulfills its new need to perform as an open space for the region. The indoor spaces show features of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such as Toemaru and Sarangbang. The overflow of functions has resulted in shortcomings in respect to program and form, but Choe, with his long experience in this field, succeeds in minimizing them. An architect is he who realizes, in the present, the ideals of the future. Therefore his creation, the building, is a product of coexistence between his dreams and his failures. Dongan Church will surely be a milestone to Choe's career, but it also shows that there are many dreams to be fulfilled.